

생태시학적 순간에 포착된 메리 올리버의 동물들

전 세 재*

1. 들어가며

쿣시(J. M. Coetzee)의 『동물로 산다는 것』(*The Lives of Animals*)의 주인공인 엘리자베스 코스텔로(Elizabeth Costello)는 동물과 시인에 대한 강연에서 시인은 “살아 있는, 감동적인 존재를 언어로 회귀”(return the living, electric being to language 65)시킨다고 주장한 후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 없이 강연을 마친다. 시인이 시에서 동물을 살아있는 감동적인 존재로 인식하고 언어로 회귀시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동물을 시적 언어로 표현한다는 의미일까? 인간의 언어로 다른 의사소통 체계를 지닌 동물을 그 본질 자체를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표현할 수 있을까? 시어가 지닌 애매모호함, 주관성 등과 같은 한계를 동물을 언어로 표현할 때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이러한 시도를 통해 시인은 시어로 동물의 어떤 점을 포착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은 무엇일까? 본 논문은 코스텔로가 촉발한 꼬리에 꼬리를 무는 무수한 질문들에 대한 답의 일부를 메리 올리버(Mary Oliver)의 시를 통해 구해보고자 한다.

* 숙명여자대학교 영어영문학부 교수

2019년 작고했지만, 대중적인 자연시인으로 올리버는 영미문학권에서 폭넓은 독자층을 지니고 있으며, 시를 통해 자연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보여준다. 올리버의 시에 관해 본 논문의 주된 관심사인 생태비평적 관점에서 존 엘더(John Elder), 존 낫(John Knott), 스콧 니커보커(Scott Knickerbocker)를 비롯한 일군의 학자들은 숲, 폭포, 나무, 동물을 관찰하고, 사색하면서, 올리버가 시를 통해 표현한 자연과의 감각적인 경험과 관계성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으며, 레어드 크리스티센(Laird Christensen)은 올리버의 시에 등장하는 섭생의 논리를 포스트모던적인 에너지의 전환으로 설명하기도 했다.¹⁾ 국내에서는 김영무가 올리버를 “새로운 의미에서의 자연시인”으로 소개한 이후로(318), 정은귀는 “다른-몸되기”를 통한 생태시의 윤리의 문제를, 윤희수는 “자연과 하나 되기”의 가능성을 탐색하면서 생태작가로서의 올리버의 지평을 넓혔다. 하지만 스콧 브라이언(Scott Bryson)은 올리버의 시들은 다른 생태 시인들과 달리 생태학적인 논쟁을 유발할 정도는 아니라고 꼬집어 평하고(76), 데이비드 오어(David Orr)는 “동물을 재현하는 데 있어서 어떤 동물도 다치지 않는다고 평할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한다. 그들의 주장은 올리버의 시에서 자연의 폭력성, 잔인함과 같은 특성보다는 아름다움의 문제를 전경화시키는 경향을 지적한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본 논문에서도 살펴볼 「대머리수리」(“Vultures”)를 비롯한 여러 시를 살펴보면 이런 비평적 폄하는 과한 지적으로 여겨진다.

이제까지 이루어진 올리버의 자연시에 관한 분석에 기대어 본 논문에서는 코스텔로의 주장에서 촉발된 동물의 시적 재현의 문제를 올리버의 시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동물에 대한 올리버의 시적 관심의 강도는 시집의 목차만 보아

1) 본 논문의 주된 관심사와는 거리가 있지만 올리버의 시에 대해서 여성주의적인 관점에서 Janet McNew)는 신화적 전략을 읽어내거나, 다이안 본즈(Diane S Bonds)와 마크 존슨(Mark Johnson)은 올리버의 여성적 시어를 랠프 월도 에머슨(Ralph Waldo Emerson)의 남성주의적 언어관과 자연관과 비교하는 등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도 드러난다. 악어, 매, 물고기, 물뱀, 기러기, 해오라기, 올빼미, 까마귀, 거북이 등 수많은 야생의 동물이 시의 제목과 소재로 사용되며 시인이 자연에 몰입하는 극적인 장면에는 동물이 등장하는 경우가 빈번하다.²⁾ 이렇게 동물이 올리버의 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올리버의 시론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올리버에 따르면 시는 인간 역사의 산물이며 인간의 역사는 자연 세계와 분리될 수 없다. “처음으로 인류를 신비함으로 매료시킨 것은 다양한 종의 동물계였고, 동물계는 경탄할 만한 이웃으로 우리에게 모방적 동일시의 충동을 불러일으켰다”는 레오 프로베니우스(Leo Frobenius)의 주장을 인용하면서 올리버는 동물이 우주의 신비에 핵심적 요소임을 강조한다(*Blue Pastures* 58-59). 하지만 올리버는 현재 인간은 자연에서 소외되었으며,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인간은 자연과의 관계 복원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며(*Blue Pastures* 59), 이러한 적극적 참여의 방안으로 올리버는 시인으로서 시 속에서 자연과 조우하는 순간을 극적으로 묘사한다(*Blue Pastures* 46).

동물의 시적 재현에 대한 올리버의 이러한 시론을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는 올리버의 시 중에서 동물과의 만남이 전경화된 「해오라기」(“Egrets”), 「해오라기」(“The Egret”), 「대머리수리」(“Vultures”), 「거북이」(“The Turtle”), 「백조」(“Swan”), 「기러기」(“Wild Geese”), 「왕국에 들어가기」(“Entering the Kingdom”)에 나타난 동물의 시적 재현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인간과 자연의 괴리된 상황에서 올리버가 시도하고 있는 자연과의 관계 복원에 있어서 시의 실천적 측면은 무엇이며, 이러한 생태시학적 전략에는 어떤 한계가 있는 지도 살펴볼 것이다.³⁾

2) 본 논문에서는 올리버의 시에 등장하는 야생 동물만을 다룬다. 길들여진 동물인 경우에 올리버는 『개의 노래』(*Dog Songs*, N.Y.: Penguin, 2015)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3) 「해오라기」(“Egrets”, *New and Selected Poems*, Vol. 1 148-149), 「해오라기」(“The Egret”, *New and Selected Poems*, Vol. 1. 47), 「대머리수리」(“Vultures”, *New and Selected Poems*, Vol. 1 155-156), 「거북이」(“The Turtle”, *New and Selected Poems*, Vol. 1 123), 「백조」(“Swan”, *Swan* 15), 「기러기」(“Wild Geese”, *New and Selected Poems*, Vol. 1. 110), 「왕국에 들어가기」(“Entering the Kingdom”, *New and Selected*

2. 생태시학적 순간으로의 초대

동물과의 만남이 전경화된 시에서 올리버가 사용하는 시적 전략은 동물을 특정 순간에 포착하는 데 있는데 이는 일정한 유형을 따르고 있다.

먼저 해오라기에 관한 두 편의 시, 「해오라기」(“Egrets”)와 「해오라기」(“The Egret”)를 살펴보자. 이 두 편의 시는 시각적인 측면에서 해오라기의 모습을 형상화했다. 정중동 속에서 사냥 중 날렵한 움직임을 형상화하는 듯한 행의 구성과 들여쓰기를 통해 시각적으로 해오라기의 모습을 형상화한 「해오라기」(“Egrets”)에서 올리버는 자신이 접근할 수 있는 한계지점인 “가장자리”에 도달한다. 호수의 가장자리에서 바라본 호수에는 처음에는 갈대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갈대는 이내 세 마리의 해오라기임이 드러난다. 주변환경과 어우러진 해오라기의 모습에서 올리버는 “하얀 불꽃의 쏟아짐”(a shower/ of white fire 23-24)을 경험한다. 이 순간 올리버가 경험하는 직관과 깨달음은 생태학적 가치와 원리의 발견에 집중되어 있다. 길을 내어 호숫가에 도달하여, 끈기를 가지고 살펴본 후에나 알아 보게 된 세 마리 해오라기의 자태에서 올리버는 해오라기가 지니는 “세상에 대한 믿음”(faith in the world 26)을 읽어낸다.

법에 따른

논리가 아닌 믿음으로

그들은 날개를 펼쳐

부드럽게 밟았습니다.

모든 어두운 것 위를

by the laws

Poems, Vol. 1. 190)

www.kci.go.kr

of their faith not logic,
they opened their wings
softly and stepped
over every dark thing. (30-34)

올리버의 시선에 포착된 해오라기의 비상은 해오라기가 지닌 세상에 대한 믿음 없이 불가능하다. 여기서 해오라기의 날개를 펼치게 만든 이 “믿음”이란 무엇일까? 올리버에 따르면 해오라기의 믿음이란 인간의 “논리”처럼 명확한 근거와 이유를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며, 이 지상의 “모든 어두운 것”을 외면하고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수용하는 것이다. 즉 해오라기의 비상은 이분법적인 배타가 아니라, 흙, 어둠과 같은 것을 인정과 수용을 통해 비상에 필요불가결한 요소로 받아들임으로써 가능해진다.

또 다른 「해오라기」(“The Egret”)에서 올리버는 시를 두 단으로 배치하여 시각적으로 해오라기의 긴 다리를 형상화하는데, 먹이 사냥 중인 해오라기의 정중동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것처럼 짧게 행 바꿈 하면서, 해오라기가 개구리와 물고기를 사냥하는 순간을 포착한다.

해오라기가 날쌔게 사냥하는 순간 물고기와 개구리가 잡아 먹힐 때 느꼈을 공포(“sheer terror” 28)를 떠올리면서 올리버는 다음과 같이 외친다.

보세요! 보세요!
이 어두운 죽음은 무엇입니까
열리는
하얀 문처럼?

Look! Look!
What is this dark death
that opens
like a white door? (33-36)

www.kci.go.kr

잡아먹히는 물고기와 개구리에게 “어두운 죽음”이 하얀 문처럼 열리는 모습에서 올리버는 죽음이 종결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의 공간을 여는 행위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죽음에 대한 올리버의 시 「죽음이 다가올 때」 (“When Death Comes”)에서 생명이 끝나는 죽음의 순간을 호기심에 가득 차서 다른 세상으로 넘어가는 관문으로 생각했던 것처럼, 물고기와 개구리에게 이 순간은 직관적으로 무섭게 여겨질지라도 종결이 아닌 새로운 시작, 순환과 같은 또 다른 가능성의 문임을 암시한다.⁴⁾

자연 속 죽음의 생태시학적 순간으로의 초대는 혐오스러운 외모와 습성으로 죽은 동물을 먹어 치우는 「대머리수리」(“Vultures”)에서도 이어진다. 날개를 넓게 펴고 하늘을 서서히 활공하며 죽은 고기를 찾는 대머리수리를 “나비”(butterflies)로 표현하면서, 올리버는 인간적인 관점에서 썩은 고기를 먹어 치우는 혐오스러운 대머리수리의 모습과 행동에 대해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시적 공간을 만든다.

올리버에게 있어서 대머리수리는 자연의 끝없는 변화 중 하나인 죽음을 다시 삶으로 바꾼다.

먹기 위해
사라지게 하려면
기적을 만들기 위해:
부활.

to eat it,
to make it vanish,
to make of it the miracle:
resurrection. (6-9)

4) Oliver, Mary. “When Death Comes.” *New and Selected Poems*, Vol. 1. 10-11.

연료를 공급하는 죽음의 뭉치
그 강력한 날개.

the huddle of death to fuel
those powerful wings. (35-36)

위의 인용한 두 부분에서 죽은 고기를 먹음으로써 날갯짓을 할 수 있는 힘을 얻는 대머리수리의 행위는 상징적으로 예수의 몸을 먹고 피를 마심으로써 부활의 기적을 기념하는 그리스도교의 성찬식을 연상시키기까지 한다. 즉 대머리수리를 죽은 동물을 뜯어 먹는 역겨운 행동을 하는 혐오스러운 동물이 아니라 부활의 의식을 거행하는 성직자처럼 묘사함으로써 올리버는 삶과 죽음의 생태학적 순환 관계를 지식으로서가 아니라, 눈으로 보고 느끼면서 경험한다.

「해오라기」(“The Egret”)와 「대머리수리」에서 죽음과 부활의 생태시학적 순간을 포착했다면 올리버는 「거북이」(“The Turtle”)에서 거북이가 물에서 나와 산란지까지 이동하여 땅을 파고 알을 낳는 과정을 추적한다. 동물다큐멘터리에서 거북이의 움직임은 카메라가 추적하는 장면을 연상시키면서, 올리버의 시선에 포착된 거북이는 등껍질이 이끼 덩굴로 덮인 채 개울과 풀숲, 갯벌을 지나 마침내 모래 둔덕에 이르러 알을 낳을 등지를 판다.

행 바꿈이 주는 긴장감과 쉬의 반복을 통해 시선을 집중시키면서 올리버는 거북이의 모습에서 “인내, 끈긔함, 결단력”(her patience, her fortitude/ her determination, 11-12)과 같은 의인화된 가치를 발견한다.

그녀는 고려하지 않는다.
무엇을 해야 할지를
그녀는 가득 차 있었다.
오래된 맹목적인 소원으로
그것은 그녀의 것이 아니지만 그녀에게 왔다.

빛속에서 혹은 부드러운 바람 속에서
그녀의 삶이 걸어가는 그 문

she doesn't consider
what she was born to do.
She's only filled
with an old blind wish.
It isn't even hers but came to her
in the rain or the soft wind
which is a gate through which her life keeps walking. (15-21)

여기서 올리버는 거북이에서 발견한 이러한 가치가 본능적으로 거북이에게 내재되어 있는 것인지 묻는다. 또한 거북이의 이러한 행동이 본능적이라면, 감탄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와 같은 질문을 통해 올리버는 거북이의 행위 자체는 “오래된 맹목적인 소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녀에게 온 것”이라고 표현함으로써 거북이에게 내재된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생태학적 원리가 존재함을 암시한다.

이렇게 본능적으로 체화된 생태학적 원리로 인해 거북이는 자기 자신과 행동을 세상과 분리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봄이 찾아오면 산란을 위해 “빛나는”(27) “높은 언덕”(26)을 오르는 거북이의 모습은 의도적으로 빛과 원천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으로 인간에게 보이지만, 거북이에게 이런 행동은 자연스럽고 본능적인 것이다.

그녀는 꿈을 꾸지 않는다
그녀는 알고 있다.
그녀는 그녀가 살고 있는 연못의 일부라는 것을,
키 큰 나무는 그녀의 아이들이고,
그녀 위를 헤엄치는 새들은

www.kci.go.kr

끊어지지 않는 끈으로 그녀에게 묶여 있다는 것을

she doesn't dream

she knows

she is a part of the pond she lives in,

the tall trees are her children,

the birds that swim above her

are tied to her by an unbreakable string. (28-33)

거북이는 인간처럼 무의식의 영향을 받는 “꿈”을 꿀 필요도 없이, 자연의 생태적 질서, 모든 생명체의 상호 연결성, 연결망 내에서 자신의 위치를 이미 내재적으로 “알고” 있으며, “끊어질 수 없는 끈”으로 연결된 모든 것의 관계성 속에서 존재한다.

해오라기에 관한 두 편의 시, 「대머리수리」와 「거북이」에서 올리버가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것은 인간의 세계관과 대비되는 동물의 생태학적 세계관이 두드러지는 순간이다. 인간의 관점에서 이분법적인 틀에서 폄하되거나, 부정된 죽음, 어둠과 같은 요소를 현재를 구성하는 핵심적인 요소로 받아들이고 자연의 관계성 속에서 자신을 파악하는 동물의 관계적 세계관은 역설적으로 인간 중심적인 이분법의 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올리버에게 자연과의 소외를 더욱 절실하게 느끼게 하고, 동시에 관계 복원을 갈망케 한다.

3. 독자와 동물

인간과 자연의 관계 복원에 대한 갈망은 시인과 동물이 만나는 생태시학적 순간 절정에 이르는데, 올리버는 「대머리수리」, 「백조」, 「기러기」에서 이 순간으로 독자를 초대한다.

www.kci.go.kr

대머리수리를 바라보는 올리버와 독자 모두는 대머리수리가 죽은 동물을 뜯어먹는 모습에서 혐오감과 경외감을 동시에 느낀다. 대머리수리의 행동에 신경 쓰지 않는 3인칭인 “그 누구도”(No one 9, 13, 20)와 대비되는 2인칭으로 올리버는 독자를 이 순간에 참여토록 한다.

잡겨서
우리 몸의 불꽃에
우리는 그들을 본다
선회와 표류, 우리는
그들을 존중하고 우리는
그들을 혐오하고,

Locked into
the blaze of our own bodies
we watch them
wheeling and drifting, we
honor them and we
loathe them, (26-31)

올리버는 독자들을 대머리수리가 죽은 동물을 먹는 순간으로 이동시키면서 “선회와 표류, 우리는”(29)을 한 행에 배치해 시를 읽는 독자는 대머리수리와 시인과 함께 일종의 집합적인 “우리”(our 27)와 “우리”(we 28)로 편입되어,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라 참여자로 초대되어, 잠시나마 대머리수리와 의식을 공유한다. 이러한 공유는 대머리수리로 대표되는 동물들도 어떤 형태의 의식적 경험과 감정을 지닌다는 동물들의 감정과 인지 능력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그들이 세상을 어떻게 체험하는지를 독자가 공감할 수 있는 시적 공간을 만들어낸다.

올리버가 「대머리수리」에서 독자에게 대머리수리의 의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면, 「백조」에서는 독자에게 직접적으로 7개의 질문을 던짐으로써 이 질

www.kci.go.kr

문을 통해, 독자는 백조의 다양한 모습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관찰하고 백조의 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이러한 행위들이 그들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가를 묻는다.

올리버가 묘사하는 백조는 해오라기 시편에서 해오라기가 주변 자연환경과 어우러졌던 것처럼, 흰색이 도드라지는 모습이 아니라 밤의 어둠 속에서 시각적 모호성으로 개별 경계가 흩어져 주변과 거의 구분할 수 없는 어우러진 모습으로 제시된다. 올리버는 아침이 되어 백조가 강에서 비상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는지를 독자에게 묻는다. 아침이 밝아 오면서 백조를 “은빛 공기”(the silvery air 2)로 날아오르는 “한 아름의 흰 꽃”(An armful of white blossoms 3)으로 묘사하면서, 백조는 희망, 자유를 상징하면서 생명의 강한 몸짓으로 표현된다. 백조의 비상과 더불어 주위는 “눈이 덮인 제방”(a snowbank 5)에서 “백합으로 가득한 제방”(a bank of lillies 5)으로 바뀌어 제방이 녹고 꽃이 피는 계절의 변화가 생명의 부활을 암시한다.

이내 소리를 내며 비상하는 백조는 흰색 십자가의 형상으로 보인다.

드디어 구름 아래서 보셨나요?

하늘을 가로질러 흐르는 흰색의 십자가, 그 발

검은 잎사귀처럼 날개, 강의 늘려진 빛?

And did you see it, finally, just under the clouds

A white cross streaming across the sky, its feet

like black leaves, its wings like the stretching light

of the river? (10-12)

백조가 비상하면서 흰색 십자가의 형상으로 보이는 이 장면에서 백조가 부활의 상징으로 비추어져 영과 육, 천상과 지상의 이원적 분리의 긴장감이 고조된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해오라기의 날갯짓을 가능하게 한, 이분법을 초월한 믿음처

www.kci.go.kr

럼, 올리버는 백조가 육체적인 요소들을 함께 지니고 있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영과 육, 천상과 지상, 빛과 어둠의 이원적 분리를 방지한다. 즉 올리버는 퇴비로 사용되고, 재생의 과정을 거치는 “검은 잎사귀”로 백조의 발을 묘사하고, 날개는 “강의 늘려진 빛”으로 표현함으로써 백조가 이 지상의 것들과 연속선상에 존재하는 필연적 요소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올리버는 독자에게 백조가 펼치는 생태시학적 장면을 독자와 공유하면서 독자에게 다음과 같은 3가지 질문을 던진다.

그리고 당신의 마음속에서 느꼈나요, 그게 모든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마침내 아름다움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결국 깨닫게 되었나요?
그리고 당신은 삶을 바꿨나요?

And did you feel it, in your heart, how it pertained to everything?
And have you too finally figured out what beauty is for?
And have you changed your life? (13-15)

올리버는 백조가 모든 것과 연관되어 있는지를 마음속으로 느꼈는지를, 아름다움이 왜 존재하는지를 알아냈는지를, 이 경험이 독자의 인생을 바꾸었는지를 묻는다. 이러한 질문은 백조의 비상을 목격한 독자에게, 생태시학적 순간을 미학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행동변화의 바탕이 될 것이라는 올리버의 믿음에 기초한다. 시적 경험을 공유하고, 그 경험 속에서 깨닫게 되는 생태학적 가치의 공감은 법과 제도에 의해 규정화된 특정한 이념이나 가치를 강제하는 것보다 근원적이면서 자발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순간에 시는 무언가를 독자에게 묻지만, 올리버는 직접적으로 물음에 대한 답을 제시하지는 않는다. 그 답은 독자의 몫이다(*Winter Hours* 24). 올리버의 기획에 따르면 독자는 이 물음에 대한 답을 구하는 과정을 거쳐, 시를 읽기 전의 자신과는 다른 독자로 변하게 된다(*Blue Pastures* 108-109).

www.kci.go.kr

그렇다면 여기서 올리버가 끌어내고 싶어 하는 “변화”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이 물음에 대한 답을 「기러기」(“Wild Geese”)에서 찾아보도록 하자. 「기러기」에서 올리버는 독자를 “당신”으로 칭하면서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선할 필요 없다”(do not have to be good 1). 올리버는 수구반복(anaphora)을 사용하면서 사회공동체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을 때 참회를 통해 사회공동체로 복귀하는 방식에 의미를 제기한다. 반사회적인 것처럼 들릴 수도 있는 이 선언은 인간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도전으로 들리기조차 한다.

올리버는 독자에게 참회해야만 하는 절망적 상황에 대해 말해보라고 한다. 올리버는 당신의 절망, 그리고 나의 절망에 대해서라고 말하면서, 절망적 상황은 현재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보편적 상황으로 파악한다. 절망은 이미 자연에서 유리된 인간의 삶 자체가 초래한 소외감에서 비롯된 보편적 절망일 수 있다. 이러한 절망적 상황의 타개는 “선”으로 대표되는 사회가 정한 사상, 도덕, 윤리가 아니라 “육체 안에 있는 연약한 동물”(the soft animal of your body 4)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love what it loves 5)는 즉 본능에 따라 삶에 참여하는 방식을 통해 가능하다.

참회대신에 본능에 따른 행동이 올리버에게 대안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현재 시인, 독자 그리고 기러기 모두가 속한 전 지구적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올리버는 “그러는 동안에도 세상은 돌아간다”(Meanwhile the world goes on. 7)는 현실을 직시하고, 한 개인보다 더 큰 생태적 관점에서 현재를 파악하도록 충고한다. 올리버는 “태양과 맑은 비의 자갈”(the sun and the clear pebbles of the rain 8)이 초원과 나무, 산과 강 위로 흩뿌리는 모습에서 자연이 빛과 비를 통해 묵은 때를 씻어내고 새롭게 탄생하는 모습을 묘사함으로써 이 시를 읽는 독자, 시의 주인공인 기러기 그리고 올리버 자신을 포함한 모두에게 치유적 경험을 제공한다.

이러한 순간의 치유적 경험은 기러기의 외침을 통해 더욱 강화된다.

당신이 누구든, 얼마나 외롭든,
세상은 당신이 상상하는 대로 모습을 드러내며,
기러기들처럼 거칠고 들뜬 목소리로 당신에게 외친다.
이 세상 모든 것들 속에
당신의 자리가 있다고

Whoever you are, no matter how lonely,
the world offers itself to your imagination,
calls to you like the wild geese, harsh and exciting
over and over announcing your place
in the family of things. (14-18)

올리버는 “거칠고 들뜬” 기러기의 울음소리를 통해 적극적으로 독자의 생태적 상상력을 일깨우면서 독자들에게 자연 속에서 인간의 생태학적 자리를 인지하도록 요청한다. 만물의 일부분으로서의 자신의 관계성을 선포하는 기러기의 울음소리는 기존의 인간중심주의와는 다른 자연이라는 큰 틀에서 인간이 자연공동체의 일부로서 다른 생명체와 공존하며 조화롭게 지속가능한 세계를 구축하며 자연을 단순히 자원의 공급원이 아니라, 영적으로 의미있는 존재로 인식하는 태도를 취하라는 촉구 소리다.

「백조」와 「기러기」에서 올리버는 시가 올리버 자신만을 향해 있지 않고 독자에게 열려있음을 보여준다. 독자는 생태시학적 순간에 시인이 제시한 질문을 통해 독자 스스로 내면의 변화를 요청받았고, 백조와 기러기의 관계적 세계관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이 생태학적 세계관으로 변화의 시발점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4. 저항하는 동물

시인과 독자가 공유하는 생태시학적 순간에는 시인과 독자가 자연과 하나가 되면서 치유를 경험하는 순간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올리버의 해오라기 시편, 「왕국에 들어가기」와 「대머리수리」는 인간이 자연 속에서 치유를 경험하는 것의 어려움과 한계 역시 보여주고 있다.

먼저 「해오라기」(“Egrets”)에서 올리버는 해오라기 서식지 주변부까지 도달하지만 거기서 인간의 길은 끊긴다. 이곳은 인간에게 더 이상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 곳처럼 보이지만, 올리버는 멈추지 않는다. 마치 윌리엄 워즈워스(William Wordsworth)의 「개암따기」(“Nutting”)에 등장하는 소년처럼, 올리버는 환영받지 못한 채, 오히려 봉쇄를 암시하는 “닫힌/ 아래로 넘어 부서진 잎 사이로”(closed/down and over the scumbled leaves 1-2), 장애물을 뚫고서 나아간다.⁵⁾ 올리버가 역지로 “길을 만들어 온 방식”(that’s how I came 14)은 자연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기어코 길을 내고자 하는 인간중심적인 방식, 즉 이제까지 소위 문화(culture)라는 이름으로 인간이 자연을 복종시켰던 방식과 닮은 꼴이다.

인간의 침입에 대한 자연의 저항을 상징하는 듯한 “가시”(thorns 9)와 “모기”(mosquitoes 10)가 그녀를 가로막으면서, 여정은 더욱더 도전적으로 변한다. 가시에 찢리고 모기에게 뜯기는 올리버는 불청객이다. “선회하며 징징”(wheeling and whining 13)대는 모기의 움직임이 의성어로 표현되어 올리버의 여정이 더욱더 큰 자연의 저항에 직면했음을 보여준다.

저항하는 자연의 모습은 「왕국에 들어가기」(“Entering the Kingdom”)에서 올리버가 자연이라는 “왕국”에 들어가 자연의 일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시도가 까마귀로 대변되는 자연의 단호한 거부로 좌절되는 장면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올

5) Wordsworth, William. “Nutting” *Lyrical Ballads* ed. Michael Mason, London, Longman, (1992): 297-298.

리버는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아이러니한 은유인 까마귀들이 지키고 있는 자연의 “왕국”에 들어가고자 한다.

까마귀가 나를 본다.
그들은 광택이 나는 목을 뻗어
가장 높은 나뭇가지에서
푸르른 나무. 나는
위험할 수도 있어, 나는
왕국에 들어간다.

The crows see me.
They stretch their glossy necks
In the tallest branches
Of green trees. I am
Possibly dangerous, I am
Entering the kingdom. (1-6)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문지기 까마귀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데 올리버는 허락을 구하는 듯 “광택이 나는 목을 지닌” 까마귀를 나무 아래서 올려다본다.

흥미롭게도 이 장면에서 올리버는 자의식적으로 자신이 인간으로서 자연을 정복해온 문화의 한 일원이기 때문에 자연 왕국에서는 자신을 “위험”(5) 요소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라 짐작한다. 즉 이러한 판단은 이제까지 인간이 행한 자연 파괴에 대한 은유이면서 동시에 인간 스스로 자신의 존재가 위협적이라는 자의식의 발현이다.

올리버는 까마귀가 앉아있는 “나무의 빛을 응시”(stare at the light in the trees 9) 하면서, 마치 인간중심적인 사고를 탈피하고자 하는 듯이 겸허하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됨으로써 무언가를 배우기 위한”(To learn something by being nothing 10)이라는 목적을 밝히지만, 왕국으로의 입국이 불허된다. 그 이유는 매우 단순하

www.kci.go.kr

다. 까마귀들이 판단하기에 올리버는 “몽상가도 아니고/ 풀을 먹는 동물도 아니다”(No dreamer,/ No eater of leaves. 17-18). 올리버는 인간으로서 풀만 먹는 초식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생태계의 안정적인 균형을 훼손할 수 있어서 까마귀에서 “위험”하게(5) 여겨지기 때문이다.

포식자로서의 인간의 자리가 “왕국”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현재 아무리 인간이 간절히 원한다 해도 자연은 인간을 거부할 수 있으며, 시적 공간 속에서나마 인간의 생태적 지위(Niche)를 만들고자 했던 올리버의 생태학적 전략이 실패할 수도 있다는 점을 암시한다.

5. 나오며

동물의 시적 재현에 관해 코스텔로가 계속해서 답변했다면 올리버의 시를 분석한 것과 유사한 결론에 도달했을까? 올리버의 시를 통해 동물의 시적 재현을 이해하고자 하는 본 논문의 시도는 동물을 다룬 다른 시인들의 다양한 시를 염두에 둔다면, 다른 결의 이해와 해석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코스텔로가 『동물로 산다는 것』에서 제기한 동물과 시의 관계를 올리버는 시를 통해 그 이상으로 전달하고 있는 듯하다.

올리버에게 있어서 동물의 시적 재현은 일종의 매뉴얼처럼 독자에게 어떤 방식으로 자연을 경험해야 하는 지를 보여준다. 올리버는 동물이 자연에 참여하는 방식이 극대화된 순간을 포착하는데 여기서 동물은 시의 배경이 아니라, 주인공으로 전경화된다. 이 과정에서 올리버 그리고 독자는 동물의 관점을 공유하는 극적 체험에 이르게 된다.

일방적인 생태학적 교훈이나 교리의 주입이 아니라 시적 초대를 통해 올리버의 시는 동물의 생태학적 본능을 시적 몰입을 통해 독자들에게 일깨워 준다. 이러한 몰입감의 감각적 경험을 통해 독자는 자연 세계에 대한 자기 자신의 위치

와 자연을 이해하는 방식과 같은 생태 윤리적 태도에 눈뜨게 된다. 비록 올리버 스스로 자신의 시를 생태학적이라는 특정한 틀에 가두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지만(*Winter Hours* 99), 독자들은 올리버의 시에 등장하는 해오라기, 백조, 기러기의 비상에서 이분법의 해체, 관계성 그리고 치유를, 거북이의 산란을 위한 긴 여정에서 관계적 자아를, 대머리수리가 죽은 고기를 먹는 장면에서 생명의 자연스러운 순환을 깨닫게 된다. 또한 시에서 포착된 그들의 모습은 독자들에게 실제 현실에서 경험하게 되는 자연을 인간중심주의에서 벗어난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현재 자연과 소외된 인간의 빈곤한 인간중심적 상상력을 코스텔로가 언급한 시라는 매개를 통해 자연의 “살아있는 감동적인 존재”를 경험하고, 공감함으로써 생태학적 상상력으로의 전환을 보여준다.

하지만 인간이 자연 속에서 치유와 평화를 경험하는 것에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어려움과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며 언어화된 인간과 동물의 관계는 현실에서의 인간과 동물의 관계로 바로 치환될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올리버의 시는 자연에서 소외되었지만, 회귀를 소망하는 끝나지 않는 “우리 종의 노래”(Blue Pastures 59)가 된다.

〈인용문헌〉

- 김영무, 「생태학적 상상력과 새로운 자연시의 가능성-Ted Hughes와 Mary Oliver의 경우」, 『공감적 상상력에서 생명의 시학으로』,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1, 317-348쪽.
- 윤희수, 「자연과 하나 되기의 가능성과 한계」, 『새한영어영문학』 52.4, 2010. 59-81쪽.
- 정은귀, 「생태시의 윤리와 관계의 시학-메리 올리버의 다른 몸 되기」, 『영어 영문학』 56.1, 2010, 25-45쪽.
- Bonds, Diane S. "The Language of Nature in the Poetry of Mary Oliver." *Women's Studies 21* (1992): 1-15.
- Bryson, J. Scott. "Both Sides of the Beautiful Water: Mary Oliver." *The West Side of Any Mountain: Place, Space, and Eco-poetry*. Iowa City: U of Iowa P, 2005. 75-97.
- Coetzee, J. M. *The Lives of Animals*. Princeton: Princeton UP, 1999.
- Christensen, Laird. "The Pragmatic Mysticism of Mary Oliver." *Ecopoetry: A Critical Introduction*. ed. J. Scott Bryson. Salt Lake City: U of Utah P, 2002. 135-152.
- Elder, John. *Imagining the Earth: Poetry and the Vision of Nature*. 2nd ed. Athens: U of Georgia P, 1996.
- Johnson, Mark. "'Keep Looking': Mary Oliver's Emersonian Project." *Massachusetts Review 46.1* (Spring 2005): 78-98.
- Knickerbocker, Scott. *Ecopoetics: The language of Nature, the Nature of language*. Amherst: U of Massachusetts P, 2012.
- Knott, John R. *Imagining Wild America*. Ann Arbor: U of Michigan, 2002. 163-88.
- McNew, Janet. "Mary Oliver and the Tradition of Romantic Nature Poetry." *Contemporary Literature 30.1* (Spring 1989): 59-77.
- Oliver, Mary. *Blue Pastures*. New York: Harcourt Brace, 1995.
- _____. *New and Selected Poems, volume one*. Boston: Beacon P, 1992.
- _____. *Swan*. Boston: Beacon P, 2010.
- _____. *Winter Hours*. New York: Mariner Books, 1999.

Orr, David. "Oprah Magazine's Adventures in Poetry" *The New York Times*
March 25, 2011.

<https://www.nytimes.com/2011/03/27/books/review/oprah-magazines-adventures-in-poetry.html?>

Wordsworth, William. "Nutting." *Lyrical Ballads*. ed. Michael Mason, London:
Longman, 1992. 297-298.

생태시학적 순간에 포착된 메리 올리버의 동물들

전세재

본 논문의 목적은 메리 올리버(Mary Oliver)의 「해오라기」(“Egrets”), 「해오라기」(“The Egret”), 「대머리수리」(“Vultures”), 「거북이」(“The Turtle”), 「백조」(“Swan”), 「기러기」(“Wild Geese”), 「왕국에 들어가기」(“Entering the Kingdom”)에 나타난 동물의 시적 재현을 분석하여, 시인이 「살아있는, 감동적인 존재를 언어로 회귀」해 줄 수 있다는 엘리자베스 코스텔로의 대답을 설명하는 것이다. 올리버가 동물을 소재로 한 시에서 사용하는 시적 전략은 생태시학적 순간을 포착하는 것이다. 이 순간에 포착된 동물의 생태중심적 시각은 인간중심적 세계관과 대조적으로 두드러지는데, 올리버는 끊임없이 의도적으로 이 순간에 독자들을 끌어들이는다. 이분법적 대립이 해체되고 관계 속에서 자신을 파악하는 동물의 생태중심적 세계관이 경험되는 이 생태시학적 순간에 시인과 독자는 자연과의 일체감과 치유도 경험한다. 동시에 이 시들은 위와 같은 경험의 어려움과 한계도 보여준다. 현재 인간 중심주의적인 이분법의 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시인과 독자는 이러한 시를 통해 자연으로부터 소외감을 더욱 날카롭게 느끼면서, 동시에 자연과의 단절된 관계의 회복을 갈망한다.

주제어: 메리 올리버, 동물, 생태시학, 독자, 생태중심주의

〈Abstract〉

Mary Oliver's Animals in Eco-poetic Moments

Chun, Sehjae

(Sookmyung Wome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licate Elizabeth Costello's mystic answer in *The Lives of Animals* that poet can "return the living, electric being to language," by analyzing Mary Oliver's animal poems including "Egrets," "The Egret," "Vultures," "The Turtle," "Swan," "Wild Geese" and "Entering the Kingdom." The poetic strategy Oliver uses in her poems about animals is to capture the eco-poetic moment. In this moment, the animal's ecocentric view stands out in contrast to the homocentric worldview and Oliver constantly and intentionally attempts to engage the readers in this moment. In this eco-poetic moment when the dichotomous frame is dismantled and the ecocentric worldview of animals that grasps itself in relation to each other is experienced, the poet and reader both experience not only oneness with nature but also healing for a while. At the same time, these poems also show the difficulties and limitations of human experience of healing and peace in nature. The poet and the reader, who are living in the frame of the homocentric dichotomy, feel the sense of alienation from nature more acutely through poetry, and at the same time long for the restoration of the broken relationship.

Keywords: Mary Oliver, Animals, Eco-poetry, Readers, Ecocentrism

투 고 일	2023년 9월 02일
심 사 일	2023년 9월 10일
게재 확정일	2023년 9월 15일

www.kci.go.kr